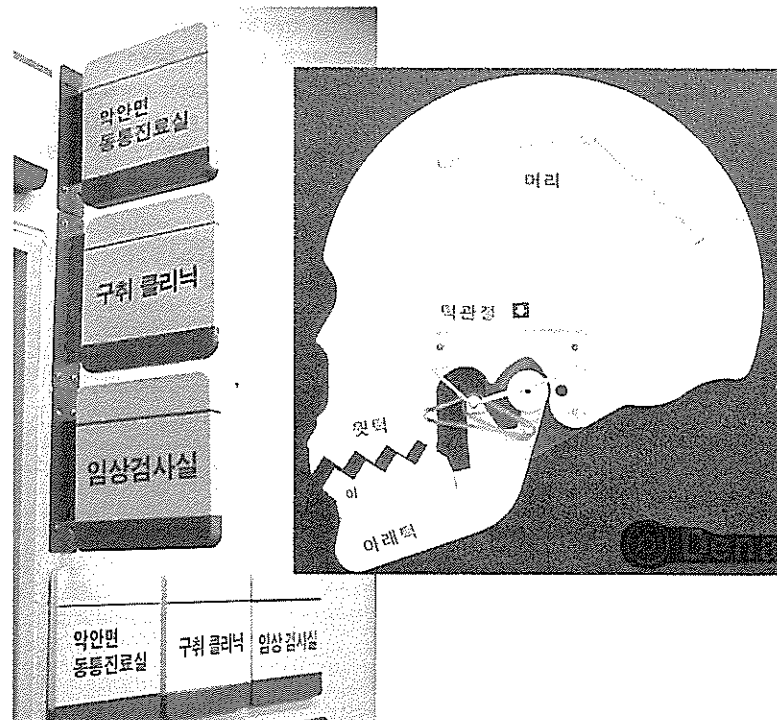


특수클리닉

팀 어프로치로 치료효율성 높여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치료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환자들이 좀더 양질의 치료를 요구함에 따라 의과에서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다양한 특수클리닉이 개설돼 있다. 치과에서의 특수클리닉은 구취 클리닉, 임플란트 클리닉, 장애인 클리닉, 레이저 클리닉, 구순구개열클리닉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수클리닉은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점차 확대양상을 보이고 있다. 11개 치대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클리닉의 현황과 장단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취재/안정미 기자



특수클리닉의 도입과 현황

연계된 진료를 가능하게

특수클리닉은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되면서 △사회의 다양화, 복잡화 △새로운 질병의 발견 △의학기술의 발전 △환자의 치료욕구 증대 등에 따라 좀더 전문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대두된 것이다.

특수클리닉의 활성화는 치과뿐만 아니라 의과병원에서도 병영운영의 중장기계획의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신축되는 병원의 경우 특수클리닉에 대한 설계가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경희치대는 지난 91년 12월 신축치과병원을 건립하면서 특수클리닉을 개설했으며 연세치대도 지난 95년 12월 신축건물로 병원을 이전하면서 다른 학교와는 차별된 감염클리닉이나 VIP클리닉 등의 특수클리닉을 개설했다. 또한 가장 최근 신설된 강릉치대는 좀더 세분화된 클리닉의 형태로 구성돼 있다.

현재 11개 치과대학병원의 공식적 특수클리닉 개설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11개 치대병원의 특수클리닉 현황

(1999년 5월)

학교	특수클리닉	학교	특수클리닉
서울치대	구취클리닉 소아장애자클리닉 악안면기형클리닉 악안면기형교정클리닉 악안면동통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코골이클리닉	부산치대	구순구개열클리닉 레이저클리닉 악관절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경희치대	구취클리닉 악관절클리닉 악안면기형클리닉 악안면동통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장애인클리닉 치조골이식클리닉	전북치대	임프란트클리닉
		원광치대	골은행클리닉 레이저클리닉 악관절클리닉 악교정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연세치대	감염클리닉 노인치과클리닉 악안면교정클리닉 외국인진료실 임프란트클리닉 장애인클리닉 종합진료클리닉 VIP클리닉	단국치대	악관절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장애인클리닉
		강릉치대	구강건강증진센터 구취클리닉 소아교정진료실 소아진정진료실 악안면기형클리닉 악안면동통클리닉 악안면외상클리닉 악안면종양클리닉 언청이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장애자진료실 턱변형클리닉
조선치대	구취클리닉 레이저클리닉 심미클리닉 임프란트클리닉 악관절클리닉		
경북치대	악교정클리닉		

치협 박영국 학술이사는 “이제는 복합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과가 분리된 불편한 진료에 비해 특수클리닉은 상대적으로 한 자리에서 공통된 진료계획을 세워 협진할 수 있습니다. 협의된 상태로 진료계획을 세우고 시술하기에 치료효율이 높습니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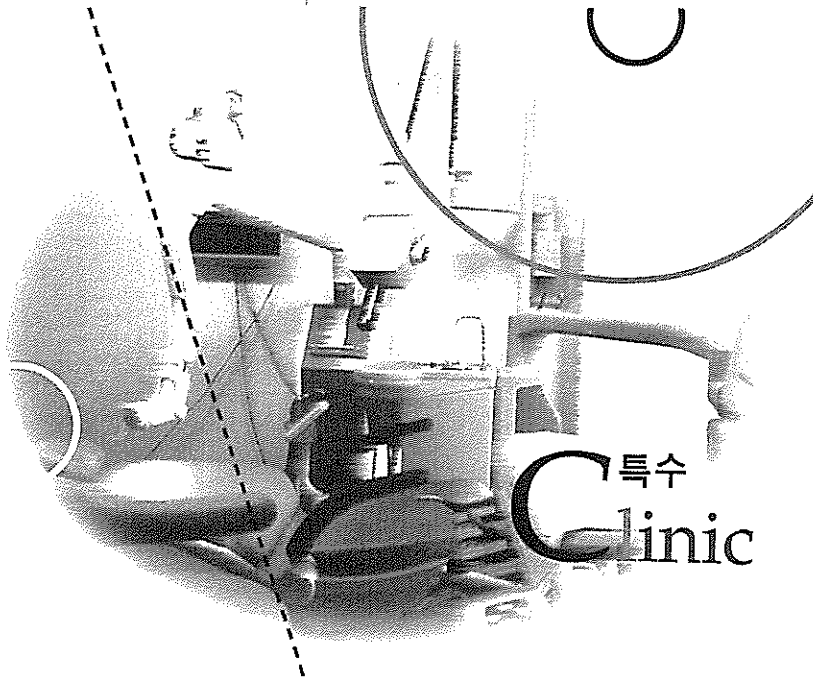
특수클리닉은 연계된 진료를 가능하게 하여 각 치대병원에서는 협진을 통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대병원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임플란트클리닉은 구강외과와 보철과 치주과가 연계돼 있고 악관절클리닉은 구강내과와 구강외과, 악교정클리닉은 구강외과와 교정과가 연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진은 치과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의과나 한의과로까지 확대돼 경희치대의 악안면동통클리닉은 구강내과와 구강외과뿐만 아니라 신경외과와 연계, 악관절클리닉은 구강내과와 구강외과, 한의과와 연계돼 있으며 부산치대의 구순구개열클리닉은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가 연계된 진료를 펼치고 있다.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김여갑 교수는 “어느 한 과에서, 어느 한 교수에 의해 진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진료가 필요해지면서 팀어프로치를 통한 특수클리닉이 발전돼 왔습니다.”라고 말한다.

특수클리닉의 장점

**의료인-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환자-보다 편안한 진료를**



특수클리닉은 한 자리에서 공통된 진료계획을 세우고 시술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을 높여주어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수클리닉의 장점을 의사와 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우선 환자의 입장.

기존의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위주로 돼 있다면 특수클리닉은 다소나마 환자를 초점으로 하여 설계돼 있다. 환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환자의 동선이 짧아져 이과 저과를 옮겨 다니는 불편이 감소됐다.

이러한 특수클리닉은 환자로 하여금 같은 병을 소유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여 좀더 편안한 마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연세치대 소아치과 이제호 교수는 “장애인 클리닉의 경우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격리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진

료받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독립된 공간은 환자가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라고 말한다.

각 과를 전공한 치과의사들이 특수클리닉에 모여 의견교환을 나누게 되는 팀 어프로치가 가능해 환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취클리닉, 임플란트클리닉, 노인클리닉, 장애인클리닉, 구순구개열클리닉, 레이저클리닉 등 구체적인 이름을 내건 특수클리닉은 어떤 곳에 의뢰해야 할지 모르는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이드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다음은 치과의사의 입장.

치과의사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경희치대 구강내과 홍정표 교수는 “구취클리닉을 개설하고 구취에 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침샘의 조직 관련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구취의 병소 원인이나 증상이 치아나 잇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발생기전이나 진행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의료인 자신도 특수클리닉을 통해 전문화된 지식을 습득하며 이런 전문성은 더욱더 전문적인 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특수클리닉은 관련된 치과의사들이 같이 모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한 장소에서 진료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결과데이터 분석이 보다 용이하다.



특수클리닉이 좀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확보와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진은 서울치대의 악안면동통클리닉과 구취클리닉)

특수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팀 어프로치의 활성화, 맨파워와 공간의 확보

특수클리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 어프로치.

특수클리닉은 일차적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의사가 참여하여 디스커션 후 각자의 역할을 배분하여 적절한 진료를 실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치대병원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팀 어프로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수클리닉이 이상적 형태로 운영돼 해당 전문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환자의 치료계획 및 진단과정이 수립되고 환자의 치료 중간에 함께 모여 그 경과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의 변경 등을 상의할 수 있다면 특수클리닉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김여갑 교수는 “팀 어프로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들간에 열린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진료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특수클리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장비와 공간이 마련돼 의사들이 한 곳에 모여 진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특수클리닉을 위한 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임성삼**서울치대 병원장**

특수클리닉이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체계화가 우선 급선무다. 대부분의 특수클리닉이 과와 함께 존재함으로써 영세하고 제한적인 면이 다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일종의 과처럼 시스템화될 필요있다.

김영구**서울치대 구강내과 교수**

치과와 의과가 연합한 특수클리닉이 필요하다. 동통클리닉, 기형 클리닉 등 치의학 분야와 의학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필요로 하는 질환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여갑**경희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특수클리닉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자신의 학문 영역을 넓히고 보다 전문성을 부여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할 수 있다. 양방이나 한방과의 협진체제로 새로운 학문을 만들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동후**연세치대 보철과 교수**

특수클리닉을 통해 집약적인 일이 가능하다. 자료수집이나 결과데이터 분석도 보다 용이하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종합병원 치과의사의 일에 대한 과부하는 특수클리닉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서울치대 임성삼 병원장은 “특수클리닉이 좀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특수클리닉을 위한 적절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일종의 과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연세치대 소아치과 이제호 교수는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특수클리닉도 액티비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비록 시설이나 장비나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 안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느냐가 특수클리닉의 유명무실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시스템의 정상화로 특수클리닉 요일을 정하고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치대 구강내과 김영구 교수는 “특수클리닉의 효과 증대를 위해 현재의 각 진료실에서 분리돼 독립된 진료실을 갖고 그 독립된 진료실에서 팀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각의 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말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특수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많은 환자들로부터 이런 특수클리닉이 있었다면 다른 곳에서 고생하지 않고 진작 왔을텐데라는 말을 듣곤 한다.

서울치대 구강내과 김영구 교수는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특수클리닉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받는 전공의나 학생들이야 특수클리닉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졸업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치과의사들은 자신의 모교에 그러한 특수클리닉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라고 말한다.

특수클리닉의 전망 치아 치료에서 사람 치료로

과거 치과진료가 치아에만 국한됐지만 지금은 치과의 영역이 구강악 안면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제 치과에서도 치아만을 진료하는 것에서 벗어나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특수클리닉은 치과내 과 사이의 협진뿐만 아니라 의과와의 협진도 시도하고 있어 점차적으로 의과와의 협진도 늘어날 전망이다.

경희치대의 경우 스트레스 센터를 설치하여 치과의 구강내과와 의과의 신경정신과, 남성클리닉, 내과(순환기계, 소화기계), 한의과의 한방정신과가 협진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전문적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을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는 경희치대 구강내과 홍정표 교수는 “과거 고전적 치과 개념은 치아 위주의 치료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치아 뿐만 아니라 인접 조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직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데도 이상 진단이 생기는 경우까지도 치료 가능한 복합적인 진료개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여러 과가 협진해야 온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과와의 협진은 의과 내에서 치과의 위상을 알릴 수도 있다. 의과와 연합해 스트레스 센터를 건립하는 건과 관련, 의과에서 치과가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의아해하더라는 홍정표 교수의 말은 의과 내에서 치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클리닉이 좀 더 발전하고 세분화되면 의과가 질환별로 특수클리닉이 개선돼 있듯이 치과도 점차 질환별 분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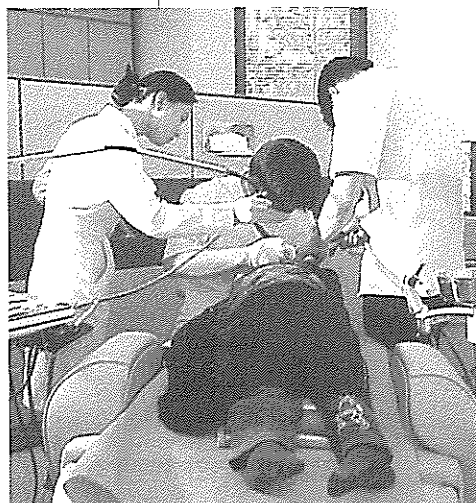
연세치대 보철과 한동후 교수는 “현재의 특수클리닉은 질환별로 분류되는 과도기입니다. 전통적인 개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는 어려운 일이고 쉬운 것부터 시도해보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특수클리닉이 좀 더 발전하면 특화된 병원의 모습으로 나타나 각 치대병원마다 특색있는 진료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장애아치료같은 경우에는 병원 경영에 많은 흑자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한다는 대의적이고도 공익적 입장을 고려해 장애아치료에 노력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서울치대의 경우에도 임성삼 병원장은 “소아장애 치료는 일종의 봉사입니다. 앞으로 소아장애나 악안면기형 등을 앞세워 공익성을 추구로 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수클리닉은 인력의 확보와 시설의 확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 체계화될 전망이며 치과 질환에 대한 항목이 확대되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장애인클리닉은 실상 병원경영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봉사차원에서, 공익적 입장에서 몇몇의 치대병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